

O-1. 지역식량체계 농도교류의 형태와 이점

Type and Merit of Farmer-Consumer Exchange of Local Food System

김종덕

경남대학교 심리사회학부

Kim, Jong Duk

Dept. of Psychology and Sociology, Kyungnam University

세계식량체계하에서 농민과 도시 소비자간의 도농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경쟁에 시달리는 가족농들은 영농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소비자들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그것이 여의치 않고, 도시 소비자들은 농민과의 교류 단절로 인해 정체불명의 먹거리를 먹고 있다.

농도교류가 농민과 도시민 모두에게 이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도농교류 정책을 통해 도농교류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단체들도 도농교류와 관련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존 도농교류 프로그램은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로 나누어지는데, 농민과 도시민간에 상호이해에 기여하지만, 교류자체가 단기적이며, 상업성이 가미되어 있고, 공동체적 접근보다 개별접근을 하고 있어 농민과 도시민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역식량체계 농도교류는 기존의 농도교류와 다른 형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식량체계 농도교류 형태로는 공동체지원농업, 농민시장, 기관급식, 지역식량정책협의회, 도시농업 등이 있다. 지역식량체계 농도교류의 이점으로는 농민과 도시소비자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관계를 제고하며, 산업형 농업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또 도시민들의 식품안전문제, 식량보장의 문제의 해결에 기여한다. 우리나라 농업이 처한 어려움, 또 도시민들이 겪는 식품안전, 식품보장 문제 등을 해결하는 농도교류가 되려면, 농도교류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 농업, 식량문제의 현상보다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개인에 토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토대해서 농도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 지역식량체계 농도교류이다. 기존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재평가와 지역식량체계 도농교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요어: 농도교류, 세계식량체계, 산업형농업, 지역식량체계, 농민, 도시민,